

郷歌의 근대 · 3

— 國文學史上 향가의 위치 문제 —

고운기*

차 례

1. 같은 출발 다른 전개
 2. 향찰 해독의 초기 양상
 3. 한국어와 일본어가 갈라 선 지점
 4. 表記와 記述의 차이
 5. 문학사상의 새로운 위치 선정
- 참고문헌
-

<국문초록>

借字表記를 하던 시대 곧 6~9세기의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원리를 가져다 썼다. 향찰과 萬葉가나가 그것이다. 그러나 향찰은 중단되었고, 萬葉가나는 일본어로서 가나로 발전하였다. 같은 출발에 다른 전개였다.

근대 들어 처음 향찰을 발견한 이는 일본의 사학자이고 한학자였다. 어학적인 전문성은 결여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학적 가치를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데 역할이 그쳤다. 어학자인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는 한자의 훈수를 빌려서 그 국어를 적은 것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터럭만큼도 다른 바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것은 문자 발생 시기에 고정해서는 맞았지만, 역사적 變轉의 경과 속에서는 맞지 않았다. 이에 비해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일본이 萬葉가나에서 출발하여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고 오늘날까지 가나라는 기본생활언어로 쓰고 있는데, 향찰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사라진 것을 보았다.

우리는 '해독이란 궁극에 있어 표기 당시의 고대어로의 환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환원만이 문제는 아니다. 借假로 표기하는 것과 문장을 記述하는 것은 다르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도 같은 차용 체계를 지닌 향찰과 萬葉가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믿어버렸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음절문자로 발전한 히라가나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의 체계를 차자표기의 향가 해석에 적용하려 한 데 문제가 있었다. 향가 연구에 먼저 나선 일본인 연구자의 이 같은 방법론은 梁柱東을 비롯한 우리 향가 연구자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향찰과 한글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나아가 문학사에서 다루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趙潤濟는 ‘歷代를 縱貫’하고 ‘上下를 貫通’하는 존재로서 향가를 들면서, 이것이 국문학사와 국민문학의 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로 향가는 국민문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하나, 향가를 다루는 문학사상의 시기 문제이다. 지어지고 향유한 신라시대에 맞추어 언급한 그간의 관행은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향가는 오랜 기간의 공백기를 거쳐 20세기에 돌연히 출현하였다. 근대의 연구자만이 아니라 문학대중에게 향유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해독과 의미 부여를 하며 작품-연구자-독자가 소통하는 문화콘텐츠가 되었다. 이것이 향가의 근대이다.

결론적으로 향가를 문학사 속에서 기술하자면 두 시기로 나눠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첫 시기는 지금의 문학사가 서술한 대로 두되, 두 번째 시기를 만들어, 20세기 초 향가가 발견된 다음의 문학사적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다. 문학사상 더 의미가 깊기로는 발견 이후의 현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發信하는 메시지이다.

주제어 : 한국문학사, 향가, 차자표기, 향찰, 萬葉가나, 문화콘텐츠

1. 같은 출발 다른 전개

요즈음 더러 보이는 句文 가운데 “...라 쓰고 ...라 읽는다.”가 있다. “야구라 쓰고 총범이라 읽는다.”라든지, “우리가 사랑했던 국민타자 이승엽, L36END라 쓰고 레전드라 읽는다.”와 같은 식이다. 이종범은 야구의 대명사이며, 영구결번이 된 이승엽의 배번 36은 ES를 대신해 읽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물론 최대의 경의를 담은 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어디서 起因하는지 찾아보면 뜻밖에도 일본어와 만난다.

포털사이트의 관련 항목에 들어가 보자, “일본어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라는 전제에, “일본어는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A라 쓰고 A라 읽기도 하지만 A'라 읽기도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라 쓰고 ...라

읽는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라는 친절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더 구체적인 전거를 댈 경우도 있다. “〈세토의 신부〉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극중 여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할 때 ‘인협(仁俠)이라 쓰고 인어(人魚)라 읽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사가 좋으니깐 오락프로그램에 실려서 ‘…쓰고 …읽는다’가 많이 전파된 듯합니다.”는 설명이다.¹⁾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세토의 신부〉는 2007년에 나온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애니메이션 팬에게 널리 알려졌었다. 우여곡절 끝에 인어와 결혼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인협은 의협(義俠)이나 마찬가지로 뜻이다. 일본어 발음이 [ninkyō]인데, 인어(人魚)의 [ningyō]와 거의 같다. 同音異義語에 가까운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의협심이 강한 인어를 賞讚하는 표현이다.

동음이의어를 써서 만드는 이 같은 표현은 본디 訓讀이 활성화 된 일본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녀는 모두가 ‘나오(直) 짱’이라 부르고 있었지만, 어느 때 내가 물어보니, 본명은 ‘奈緒美’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²⁾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소설의 나오미라는 여주인공은 외모가 서양풍의 분위기를 가졌다. 일본식 이름 ‘나오(直)’에서 ‘奈緒美’로 바꾼 것은 여자의 그런 캐릭터를 살리려는 작가의 의도적인 작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오미’라 읽어달라고 奈緒美 위에 작은 글씨로 なおみ(나오미)라 적는다. 이 작은 글씨를 흔히 루비라고 한다. 루비는 본문이 5호 활자인 경우 7호 활자를 쓴다. 루비는 영국의 古活字 크기를 나타내는 말인데, 7호 활자가 루비

1) 해당 내용의 포털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5&docId=101593314&qb=fuudvCDsk7D>

2) 谷崎潤一郎, 『痴人の愛』(新潮文庫, 1985改版), 6頁. 번역은 필자가 했으며, 이하의 다른 번역도 동일하다.

2와 거의 같은 크기여서 하는 말이다. 요즈음으로 치면 7호는 약 5.5포인트이다.

루비의 일본어로는 후리가나(ふりがな)라는 말이 따로 있다. 전통적으로 한자 옆에 다는 토이다. 서양식 인쇄기술이 도입되면서 루비가 더 많이 쓰이게 된 것이다.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보자.

- ① 朋輩 ←ほうばい[houbai]
- ② 尤も←もっと[motto]
- ③ 下宿住居 ←すまい[sumai]

후리가나는 위의 예처럼 어려운 한자의 음讀를 표시(①)하거나, 한자의 訓讀을 표시(②, ③)하는 경우에 쓰인다. 후자에서 ②는 반드시 혼독해야 하는 예, ③은 음독과 혼독이 동시 가능할 때 그 선택을 보이는 예이다. 둘 사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住居는 보통 음독인 [jyugyo]와 혼독인 [sumai]가 혼용된다. 그런데 후리가나가 붙으면 반드시 그렇게 읽어달라는 요구이다. 곧 “住居라 쓰고 すまい라 읽는다.”가 되는 셈이다.

후리가나(루비)를 쓴 것은 讀法을 위한 방편이었다. 거기에는 일본어의 구성원리가 담겨 있고, 동음이의어가 많은 일본어의 숙명적 속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처음에 보인 “仁俠[ninkyō]라 쓰고 人魚[ningyō]라 읽는다.”와 같은 구문은 전통적인 후리가나에서 벗어나 있다. 단순히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거의 같은) 동음이의어를 나란히 놓아 비유의 수사로 올려놓았다. 실상 한 마리 인어에 지나지 않지만 의협심 강한 존재라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야구라 쓰고 총범이라 읽는다.”는 구문을 만드는 데 起因 분자가 된다. 하지만 기인이라고는 하나 의미망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다. 야구와 총범을 잇는 機制에는 동음이의어도 독법의 어떤 원리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언어적 상관관계나, 사회적 含意에서 찾아내는 유추적 해석이다.

사소하다면 사소할 문제를 들어 이 글을 시작하는 까닭이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곧 훈독이 사라진 한국어는 시대가 지날수록 일본어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일본인 연구자의 눈에 향가 자료가 들어왔을 때 이미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간과한 데 따른 문제점을 밝혀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借字表記를 하던 시대의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원리를 가져다 썼다. 향찰과 萬葉가나가 그렇다. 그러나 향찰은 중단되었고, 萬葉가나는 일본어로서 가나로 발전하였다. 같은 출발에 다른 전개였다.

한국어는 오랜 공백기를 거쳐 한글로 탄생하였다. 이 때 한글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훈독을 버린 것이었다. 가나와 한글은 아주 다른 원리를 가진 언어가 되었다. 그런데 향찰로 표기된 향가를 처음 발견한 일본 연구자는 향가를 한글로, 그것도 15세기 식 한글로 풀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가는 그것이 근대인에게 발견된 다음 뜻밖의 향유 기간을 가진다. 문학사에서 향가를 다뤄야 할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2. 향찰 해독의 초기 양상

향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근대 초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살핀 바 있으나,³⁾ 거기서 소개한 글 두 편을 다시 한 번 간단히 다뤄야겠다.

본서에는 신라어를 많이 싣고, 또 歌篇도 十數首를 들어 신라 古歌를 전해 주는 것은 본서만이 그러하므로, 一然의 功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본서는 실로 신라문학사의 骨子が 되는 것이다.⁴⁾

東京大 교수 쓰보이 쿠메조(坪井九馬三)는 최초의 『삼국유사』 해제인 이

3) 고운기(A), 「鄉歌의 근대·1」, 『한국시가연구』25(한국시가학회, 2008) 참조.

4) 坪井九馬三, 「三國遺事」, 『史學雜誌』11편 9호(日本史學會, 1900), 67~68면.

글에서 처음으로 향가를 언급하며, 문학만이 아니라 어학에까지 다대한 공헌을 할 자요이고, 이는 일연의 공인데, 신라문학사의 骨子라고 말한다. 향찰로 적은 향가를 보며, 어학의 자료, 문학사의 골자로 본 데에 그의 혜안을 인정할만하다. 이는 같은 대학 강사였던 쿠사카 히로시(日下寬)에게서도 확인된다. 그는 쓰보이의 해제보다 4년 뒤 쓴 『삼국유사』 서문에,

신라의 옛말은 이미 사라졌고, 겨우 향가 십여 수가 남았을 뿐인데, 실로 滄海遺珠라 할 만 하다. 그러므로 신라의 옛일을 조사하여 또한 우리의 古言에 참고하지 않겠는가.⁵⁾

라고 하였다. 향가를 일러 ‘창해유주’라 한 말이 인상적이다. 양주동이 ‘이 千有餘年來 蒼海의 遺珠와 같이 僅僅히 길어서남은’⁶⁾ 향가라고 한 말과 겹쳐진다. 양주동이 쿠사카의 서문을 보고 따라했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혜안의 소지자가 쓴 표현의 일치가 우연을 넘어선다.

다만 쓰보이는 사학자이고 쿠사카는 한학자였다. 문학적인 식견은 있었으나 어학적인 전문성은 결여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학적 가치를 들여다보았을 뿐, 어학적 연구자료 또는 古言에 참고할 자료 정도로만 언급한 데 그쳤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어학 연구자의 눈길을 끌게 한 것만으로 그들의 공은 크다.

쓰보이가 東京大本 『삼국유사』를 낸 1904년,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는 같은 東京大에서 朝鮮語를 가르치고 있었다. 한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직후이다. 그는 자신이 졸업한 東京帝大 博言學科의 강사로 비교언어학자였다. 가나자와가 향가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했다. 그가 한국어를 비교 연구한 결과는 1910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여,⁷⁾ 드디어 1918년 「이두의 연구」⁸⁾

5) 日下 寬, 「校訂三國遺事序」, 『鹿友莊文集』, 1923, 卷一 張二十八. 이 글의 初出은 1904년 日下 寬이 坪井九馬三와 함께 東京大史誌叢書의 하나로 낸 『三國遺事』(新活字本)의 서문이다.

6) 양주동, 『增訂 古歌研究』(일조각, 1965), 2면.

로 이어졌다.

가나자와의 연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며 선불리 日鮮同祖論 등을 내세운 점은 일찍이 비판받았지만, 吏讀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데서부터 다소 단정적인 데가 없지 않았다.

- ① 記紀의 가사가 모두 소리를 가지고 적혀졌음은 곧 가나의 本體였고, 『萬葉集』에 여러 종의 義訓을 섞었음은 轉化된 가나의 용법이다.⁹⁾
- ② 이 노래(處容歌-필자)가 音訓을 섞어서 적은 모습은 우리나라의 萬葉集와 다르지 않다.¹⁰⁾
- ③ 한자를 우리나라에 전해준 조선은 우리 국어와 전적으로 동일계통의 언어를 가지고, 또 본래 無文字의 나라였다면, 한자가 假字로서 사용되었으리라는 것과, 우리보다도 먼저 저쪽에서 시작하였으리라는 것도 자연스런 순서이다.¹¹⁾
- ④ 한자의 音訓을 빌려서 그 국어를 적은 것, 우리나라의 眞字·假字와 터럭만 큼도 다른 바 없다.¹²⁾

①은 가나의 발전과정을 보인 것이다. 가사를 한 자씩 萬葉가나로 쓰다가 한자의 표의성을 살리며 부속어에 萬葉가나를 쓰는 쪽으로 바뀌어갔다고 했다. 이를 訓字 주체의 서식이라 하는데, 『萬葉集』에 실린 대부분의 노래가 이 표기방식에 따른다. ②는 <처용가>를 해석한 후 결론적으로 향찰의 표기방식이 萬葉가나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가나자와가 「이두의 연구」

7) 金澤庄三郎, 『日韓兩國語同系論』(三省堂, 1910)

8) 金澤庄三郎, 「吏讀の研究」, 『朝鮮彙報』4(朝鮮總督府, 1918)

9) 위의 논문, 73면.

10) 위의 논문, 90면.

11) 金澤庄三郎, 『新羅の片假字』(金澤博士還曆祝賀會, 1932), 1면.

12) 위의 책, 2면.

(1918)에서 萬葉가나와 향찰의 표기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핵심 부분이다. 이 같은 그의 생각은 『新羅の片假字』(1932)에 와서도 바뀌지 않았다. ③에서 假字의 사용은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였음을 인정하지만, ④에서 그 방식이 ‘터럭만큼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

가나자와의 주장은 이후 줄곧 고대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를 따지는 이에 게 지남(指南)처럼 쓰였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발생 시기에 고정해서는 맞았지만, 역사적 變轉의 경과 속에서는 맞지 않았다.

3. 한국어와 일본어가 갈라 선 지점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작은 부분이지만 가나자와에서 분명한 걸음 앞선 이두와 향찰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향찰이 漢語를 삼입하여 그것을 음독하는 일에 주력하였음을 밝히면서, 고유어의 각 품사에 한자를 대응시켜 義讀하였지만, 한국어는 어느 시점부터 義讀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명사의 末音도 表音적으로 표기하는 예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夜音(밤), 心音(마음) 같은 것이다.¹³⁾ 이것은 나중 양주동에 의해 정립되는 末音添記의 초보적인 논의이다.

물론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도 “或は「前」を音で전と讀む所から、nの頭音を有する「乃」を用ひて애の代わりに用ひたものと見ることも出來よう(혹은「前」을 음으로 ‘전’이라 읽는 바, n의 두음을 가진「乃」를 써서 ‘애’ 대신에 썼다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라고 하여, 일종의 말음첨기를 罅두에 둔 듯한 설명이 눈에 띈다. 아유가이의 논의를 罅두에 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양주동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주동은

13) 鮎貝房之進, 「國文(方言俗字)吏吐, 俗證造字, 俗音, 借訓字」, 『朝鮮史講座』4(朝鮮史學會, 1923), 19~22면.

14) 小倉進平, 『郷歌及び吏讀の研究』(京城帝大, 1929), 203면.

〈원왕생가〉의 ‘蜑音深史隱’을 처음에 ‘蜑흙 기프샐’이라 해독하고 ‘대방의 교시를 기다리기로’¹⁵⁾ 하였다. ‘蜑의 古訓이 口음을 終聲으로 하는 말인 것까지는 알 수 있으나, 아직도 문헌에서 찾지 못하였기’¹⁶⁾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말음첨기라는 용어를 확정하지 못하고, 약간 어정쩡하게 ‘중성으로 하는 말’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다 1942년 『조선고가연구』에 와서 아예 ‘다담’이라 하고, ‘흙은 蜑의 古訓의 말음첨기’¹⁷⁾라고 분명히 했다.

말음첨기가 던진 중요한 의의는 한글 창제에서 3분법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¹⁸⁾ 아유가이는 그 첫 걸음을 떤 것이다.

아유가이의 논의 가운데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이, “조선의 옛 시대에서 국어를 가지고 완전한 사상을 나타내는 산문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¹⁹⁾ 라는 대목이다. 일본은 萬葉가나에서 출발하여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고 오늘날 날까지 가나라는 기본생활언어로 쓰고 있다. 특히 『萬葉集』의 7~9세기 운문에서 10세기 物語의 산문으로 발전한 대목이 주목된다. 운문에서 산문으로 가는 문장 규범의 탄생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유가이는 향찰이 그 단계에 이르지 않고 사라진 것을 보았던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일본의 고대문학의 발전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일본에서는 철학의 역할까지 문학이 대행하고, 중국에서는 문학조차도 철학적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⁰⁾는 지적이다. 이는 양가

15) 양주동, 「향가의 해독 연구」, 『양주동전집』10(동국대출판부, 1998), 147면.

16) 위의 글, 같은 부분.

17) 양주동, 앞의 책, 511면.

18) 고운기(B), 「鄉歌의 근대·2」, 『한국시가연구』37(한국시가학회, 2014), 190면. 이 같은 관점에서 노마 히데키(野間秀樹)가, “한국어에서의 말음첨기 경험은 〈중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절에서 음절말 자음을 하나의 단위로 분리해 내게끔 하는, 말하자면 유전자적인 작용을 초래했을 터이다.”(김진아 외 옮김, 『한글의 탄생』, 돌베개, 2011, 115면)라고 지적한 것은 적실하다.

19) 鮎貝房之進, 앞의 논문, 4면.

적인 평가이다. 일본인은 한쪽으로 문학의 중대성에 치우쳐 있었지만, 다른 한쪽으로 철학의 빈곤을 문학으로 벌충하려는 역작용 속에 있었다. 물론 일본의 문학은 두 가지가 함께 가능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었을 위의 논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주장을 이어간다.

어째서 같은 奈良時代에 한편으로는 大佛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요슈(萬葉集)가 있는 것일까. 아마도 외래의 불교가 ‘위’에서 채용되고, ‘아래’에서는 널리 침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같은 귀족층 가운데서도 외국어에 따른 추상적인 사고는 불교화 되고, 일본어에 따른 감정생활의 機微는 불교와 연계가 없는 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리라.²¹⁾

불교가 수입된 이후, 그것이 추상적인 사고의 철학적 바탕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상층 귀족에 국한하고 말았고, 일본어로는 그들만의 원형적 심성을 담은 감정생활을 표현하는 쪽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중국어로 법전을 만들고 국사를 편찬하고 불교이론을 서술한 일본의 귀족 지식인이 한시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감정생활의 표현에서는 『萬葉集』 속의 노래와 같은 일본어 노래가 이론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²²⁾

그들에게 감정생활의 중심은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였다. ‘육체적인 성질과 직접한 감각적인 표현’이었으며, ‘신이나 천지자연과의 관계’²³⁾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문학적 성취는 오롯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역사상 문학의 最盛時代였던 奈良朝의 그것이 쇠미한 것은 儒佛 2教가 원인’이라 하고, ‘한학과 함께 불교의 言說을 먼저 그 敵이라고 볼’²⁴⁾ 정도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절대적인 문학에의 경도이고, 수준 높은 문학적

20) 加藤周一, 『日本文學史序說』上(筑摩書房, 1999), 13면.

21) 위의 책, 57면.

22) 위의 책, 58-60면 참조.

23) 위의 책, 86면.

24) 藤井貞和, 『國文學の誕生』(三元社, 2000), 21면.

표현을 갈망한 나머지 당대인은 표기의 발전을 이뤄야 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문학사는 한자를 빌린 단순한 자국어의 표기체계가 문학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이 '短歌:운문'에서 '物語:산문'으로의 轉化이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의 경우 향가의 운문 표기에서 향찰은 그치고 말았다. 11세기부터 그 자리에 한문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물론 한글 창제 이후에도 이두가 널리 쓰였다거나, 고려 때 불교 경전에 우리말 토씨와 어미를 붙여 읽는 각필 구결이 활발하게 쓰인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또한 산문으로의 발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후 한국어와 일본어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4. 表記와 記述의 차이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삼국유사』였다. 1512년 경주에서 改版된 이 책이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간의 관심을 잃은 다음, 1904년 東京에서 신활자본 형태로 복간되자,²⁵⁾ 영역별로 비상한 주목을 끄는 가운데 일례로서 향가의 所載에 보인 반응은 앞서 소개하였다. 『삼국유사』의 돌출을 가장 극적으로 응변하는 예가 향가일 것이다. 아마도 14수를 열람한 마지막 사람이었을 一然 이후, 伏流한 이때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진단이 적절하다.

향가가 완전한 망각 속에 묻혀 버렸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의 고전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적극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부각됨이 없이 20세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²⁶⁾

25) 이에 대해서는 고운기,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현암사, 2008)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6)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서울대출판부, 2000), 4면.

적극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 불행은 『삼국유사』의 돌출 후 향가의 발견으로 불식되었으나, 이를 해독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기실 ‘해독이란 궁극에 있어 표기 당시의 고대어로의 환원’²⁷⁾이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선조 중세음과 신라음 사이의 시차 극복 문제’²⁸⁾는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15세기 어법으로 일관하여 해독한 저변에는 그나마 그것이 고대어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이었다. 양주동은 ‘원래 언어란 연대가 오래되었다고 그리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는다’²⁹⁾는 것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였다. 편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실은 고대어의 환원만이 문제는 아니다. 假字로 표기하는 것과 문장을 기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향찰이요 후자는 한글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최근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임경화가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였다.³⁰⁾ 임경화는 ‘발견’과 ‘진정한 의미의 발견’이라는 두 가지로 20세기 향가의 출현을 정리하였다. 먼저 향가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非漢文 자료가 ‘조선문’으로 발견되었는데, 표기수단은 한자이고 그마저 일본총독부 관계자에 의해 발견된 ‘患部’를 감춘 채, 조선인 연구자는 ‘국어학/국문학’ 속에 향가를 자리 매김하였다. 이것이 향가가 국문학으로 편입한 ‘진정한’ 의미에서 발견이다.³¹⁾

27) 위의 책, 15면.

28)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연세대출판부, 1990), 38면.

29) 양주동, 앞의 책, 155면.

30) 여기서 다루는 임경화의 논문 2편(2007, 2008) 아래 각주에서 밝힌 바이나, 그 가운데 1편(2007)은 제목이 나의 그것과 같다. 이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는 고운기(B), 앞의 논문, 185-186면에서 해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두 편의 논문 모두를 참고 대상으로 삼았다.

31) 임경화(A), 「향가의 근대: 향가가 ‘국문학’으로 탄생하기까지」, 『한국문학연구』32(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429면. 여기서 ‘일본총독부 관계자’는 일본 본토의 향가 연구자를 포괄하는 ‘일본인 연구자’로 바꾸는 것이 옳을 듯하다.

임경화는 일본인 연구자가 향찰을 ‘조선문’으로 본 데에 오류의 출발점이 있다고 본 듯하다. 이는 이 글의 앞에서도 논하였다. 가나자와나 아유가이가 공히 향가의 借字法 자체는 萬葉가나와 유사하다고 평가했고,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이후 萬葉가나가 고대의 ‘국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향찰도 그런 언어라고 속단했다는 것이다.³²⁾ 임경화는 두 번째 논문에서 이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조선의 차자표기를 ‘향가언문’이나 ‘신라한글’이라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체와 한글 사이에 놓인 문자의 단절을 도외시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본어 표기사의 조선어로의 이식은 안이하고 단락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³⁾

신라시대의 차용체와 15세기에 창안된 한글 사이의 단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일본어 표기 역사를 조선어로 그대로 이식한 데 머물고 말았다는 비판이다. 본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일본어와의 관계성에서 규정된 조선어 계통론에 대한 관심’³⁴⁾을 가진 비교언어학자였다. 그는 선배학자인 가나자와나 아유가이가 조선어는 복잡한 語音으로 인해 향찰이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사용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같은 차용 체계를 지닌 향찰과 萬葉가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믿어버렸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萬葉集』를 훈독하면서 저들이 알아낸, ‘차용체라는 서기언어의 성격을 소거하고 음절문자인 히라가나라는 전혀 다른 문자체계로 치환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것’³⁵⁾을 무시하고 향가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 데 문제가 있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가나자와가 처음 〈처용가〉를 해독할 때,

32) 위의 논문, 432면.

33) 임경화(B),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향가 해독: 차용체(借用體)에서 국문으로」, 『국어학』51(국어학회, 2008), 370면.

34) 임경화(A), 앞의 논문, 437면.

35) 임경화(B), 앞의 논문, 377면.

조선어의 표기를 알파벳으로 했음을 상기하자면, 그는 근본적인 조선 고대어의 발음에 관심을 두었던 듯하다. <처용가>의 해독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오구라 이래 모든 이가 아쉬워한다. 더불어 성급하게 日鮮同祖論에 빠진 점을 비판하면서도, 발음론의 기반에서 조선의 고대어에 다가가려 한 점은 특기하고 있다. 더욱이 가나자와가 향가 가운데 <처용가> 한 편만 해독한 것처럼 말하지만, <모죽지랑가>를 비롯한 5편이 더 있다.³⁶⁾ 이의 해독을 밝힐 때는 <처용가>와 같이 조선어의 알파벳 표기-원문(향찰)-일본어 번역 순을 썼다. 오구라는 가나자와의 책이 나온 다음 이 가운데 8군데를 참고할 요량으로 자신의 저서(『郷歌及び吏讀の研究』) 소장본 해당 부분에 메모해 두었다.³⁷⁾ 발음에 집중한 가나자와의 방법론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동이, '표면적으로는 小倉에 대해서 영향과 반발의 관계에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小倉의 조선어의 역사적 연구라는 과제인식을 계승하여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³⁸⁾해 연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表記와 記述의 엄정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제부터 나가야 할 향가 해독의 길이 어디인지 示唆하는 바 크다.

5. 문학사상의 새로운 위치 선정

조선조 초기 세종 때 나온 『治平要覽』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신라의 여왕 맏이 본래 각간 魏弘과 간통하였으므로 위홍이 항상 궁중에 들어가 정사를 좌지우지하였다. 여왕이 위홍으로 하여금 중 大矩와 함께 향기를 수집하게 하였고 위홍이 죽자 惠成王의 시호를 하사하였다(제94권/唐/僖宗 文德 원년).

36) 金澤庄三郎, 『新羅の片假字』(金澤博士還曆祝賀會, 1932)

37) 고운기(B), 앞의 논문, 196-197면. 예컨대 오구라는 다음과 같이 메모해 두었다.
"kū-ri-i mǎa-mi / 慕理尸心未 / 慕ふ心が / 金澤博士「新羅の片假字」p. 3"

38) 임경화(A), 앞의 논문, 449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다. 『삼국사기』에서 인용했기 때문이다.³⁹⁾ 『치평요람』은 본디 정치의 득실을 따져 후대에 권계하고자 엮어졌다. 그러므로 위기사의 수록 목적은 진성여왕의 失政을 보여주는 데 있다. 거기에 어찌다 향가 편찬 소식이 들어간 것이다. 곧 향가 소개가 목적은 아니었다.

조선조 후기 李圭景(1788~1863)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신라 향가의 존재를 다음과 같은 기사로 전해 준다.

『三代目』 1책 : 신라 진성여왕이 각간 魏弘과 사통하여 위홍이 항상 大內에 들어가 일을 보았는데, 홍에게 명하여 大矩 화상과 함께 향가를 편수케 하였으니, 이것이 『삼대목』이라는 것이다(경사편 1, 경전류 1/ 樂).

이 기사 또한 위의 『삼국사기』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삼대목’이라는 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지만, 여기도 향가가 무엇인지, 『삼대목』이 현재 상황에서 전승되는지 여부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향가에 관한 한 아무 관심도 호기심도 없는 形骸化 된 기록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도 위의 두 내용이 합쳐져 나올 뿐이다.

향가가 ‘완전한 망각’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인식의 대상’ 또한 아니었다는 선학의 지적이 다시 떠오른다. 그러나 어찌다 실은 ‘향가’라는 두 글자 외에 어떤 生氣도 없는 기록이라면 이는 망각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국문학사상 향가라는 장르의 실상이다.

그런데 향가는 맹랑할 정도로 돌연하게 문학사 속에 끼어든다. 그 생명을 다하고 900년 쯤, 문헌에 마지막으로 흔적을 남기고 6백년 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내다 돌연 나타나, 겨우 일족 다소간을 이끌고 와서는 주인이 돌아왔다 소리치는 형국이다. 20세기 향가 연구자가 그런 맹랑함 앞에 즐거운 듯 보낸 100년이였다. 심지어 ‘국문학의 출발은 곧 향가’라는 결론에까지 이르렀다.

39)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아마도 그것은 趙潤濟가 문학사에서 詩歌史를 가능케 하는 요소로 ‘歷代를 縱貫’하고 ‘上下를 貫通’하는 존재로서 향가를 들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향가의 작자층이 상하 관통한다는 특징을 들어 국민문학으로 간주하였다. 향가는 ‘국문의 문학’과 ‘국민의 문학’의 기원이라는 것이다.⁴⁰⁾

향가가 국문문학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밝혔다. 그렇다면 국민문학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조운제가 措辭한 바 ‘국민의 문학’에서 국민은 선의로 해석할 수 있다. 상하귀천 없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문학이라는 의미 부여일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기 학문의 영향권 속에서 배양된 범주 안에서 한 말이라면 그가 구사한 용어는 무엇이 되던 선의와 연계할 일이 아니다. 특히 국민문학은 더욱 그렇다.

국민국가가 전면에서 나서는, 明治 신정부 아래에 문화 ‘통제’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사학과 함께 국문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된다. (중략) 明治 20년대부터는 ‘國文學’이라 말하는 것이 우세하게 되었다.⁴¹⁾

일본에서 국문학의 성립을 알리는 지점에 국민을 배경에 둔 사정이 있다. 국민은 제국의 구성원이다. 그는 황제의 臣民이며 국가에 충성할 절대적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국문학은 그런 국민의 총화가 모인 자리에서 쓰일 문학적 온축을 감당하는 것이다. 식민지로 연장되는 국민의 개념은 한번 變轉을 겪거니와, 어느 쪽이건 경성제대의 국문학 교실에서 쓰인 국민문학은 선의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 문학사 초기의 이런 방향 설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향가를 문학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국민문학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이는 간단한 일이지만 정중히 인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는 향가를 다루는 시기의 문제이다. 지어

40) 趙潤濟, 『한국문학사』(탐구당, 1963), 40면.

41) 藤井貞和, 앞의 책, 14면.

지고 향유한 시기에 맞추어 문학사의 신라시대에 언급한 그간의 관행은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정도 분량으로 문학사에 가까운 서술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²⁾는 점을 연구자 모두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향가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앞서 논한 대로, 오랜 기간의 공백기를 거쳐 돌연히 출현한 점이다. 향가는 할 수 있는 한에서 문학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향가의 존재를 알린 一然의 “신라 사람은 향가를 무척 높였거니와, 대체적으로 『시경』의 頌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자주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⁴³⁾는 설명조차 ‘感通’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는 향가의 전모를 말하지 않았다.

신라 향가 14수는 수적인 측면에서 장르로서 향가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것이 모두 한 문헌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해진다.

나는 향가를 문학사 속에서 기술하자면 두 시기로 나눠 보는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첫 시기는 지금의 문학사가 서술한 대로 두되, 두 번째 시기를 만들어, 20세기 초 향가가 발견된 다음의 문학사적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다. 첫 시기는 매우 한정적으로 다룬다. 실상이 그렇듯이 향가를 논할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학사상 더 의미가 깊기로는 발견 이후의 현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發信하는 메시지이다. 이는 研究史의 영역을 넘어선다.

참으로 특이하게 향가라는 장르는 잊힐 뻔한 오랜 기간을 지나 근대인에게 향유의 대상으로 다시 떠올랐다. 극히 적은 자료로 수행하는 향찰 해독은 난감한 일이지만, 그것이 연구자에게 던진 도전과 수고의 역설은 매력적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차자표기의 해독이 전제되어야 논의할 수 있는 作品群은 향가밖에 없다. 해독이라는 일 자체가 하나의 문학사적 사건인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다. 차자표기와 언어기술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 해독

42) 서철원,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새문사, 2013), 13면.

43) 『삼국유사』, 「감통」, 〈월명사도술가〉

의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학대중은 그 같은 해독과 의미 부여를 즐기는 문학현상 속으로 들어갔다. 작품-연구자-독자가 소통하는 미디어로서 향가는 하나의 문화콘텐츠⁴⁴⁾이다. 20세기에 발견된 향가는 '해독-의미부여'의 콘텐츠를 작품-연구자-독자 사이에 소통시키고 있다. 그것은 신라인이 노래하던 때의 향가와 별개의 의미를 띤다. 이것이 文學史가 다루어야 할 향가의 근대이다.

44) 문화콘텐츠는 영국에서 출발한 미디어 콘텐츠의 우리 식 명명이다. 21세기의 미디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혁명적인 변화를 보인다.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의 방식이 아날로그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 디지털 미디어는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문화콘텐츠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 자료

- 谷崎潤一郎, 『痴人の愛』, 新潮文庫, 1985改版.
- 坪井九馬三, 「三國遺事」, 『史學雜誌』11권 9호, 日本史學會, 1900, 67~68면.
- 日下 寛, 「校訂三國遺事序」, 『鹿友莊文集』, 1923, 卷一 張二十八.
- 金澤庄三郎, 『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 1910.
- _____, 「吏讀の研究」, 『朝鮮彙報』4, 朝鮮總督府, 1918.
- _____, 『新羅の片假字』, 金澤博士還曆祝賀會, 1932.
- 鮎貝房之進, 「國文(方言俗字)吏吐, 俗證造字, 俗音, 借訓字」, 『朝鮮史講座』
4, 朝鮮史學會, 1923, 19~22면.
-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大, 1929.
- 加藤周一, 『日本文學史序說』, 筑摩書房, 1999.
- 藤井貞和, 『國文學の誕生』, 三元社, 2000.
- 野間秀樹, 김진아 외 옮김, 『한글의 탄생』, 돌베개, 2011.

■ 저서 및 논문

- 고운기,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현암사, 2008.
- 고운기(A), 「鄉歌의 근대·1」, 『한국시가연구』25, 한국시가학회, 2008.
- _____(B), 「鄉歌의 근대·2」, 『한국시가연구』37, 한국시가학회, 2014, 190면;
196-197면.
- 양주동,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65.
- _____, 「향가의 해독 연구」, 『양주동전집』10, 동국대출판부, 1998, 147면.
- 趙潤濟, 『한국문학사』, 탐구당, 1963.
-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2000.
- 최 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출판부, 1990.
- 임경화(A), 「향가의 근대: 향가가 ‘국문학’으로 탄생하기까지」, 『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429면; 432면; 449면.
- _____(B),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향가 해독: 차용체(차용체)에서 국문으로」,

『국어학』51, 국어학회, 2008, 370면; 377면; 437면.
서철원,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논문 투고일 : 2018. 10. 20 심사 완료일 : 2018. 11. 14 게재 확정일 : 2018. 11. 14

Abstract

Hyangga(鄉歌) in Modern Times · 3

Ko, Woon-kee

The written Chinese characters were integrated into Korean and Japanese between the 6th and 9th century. At that time, the Korean and Japanese characters had a similar principle, such as Hyangchal(鄉札) and Manyo-Kana(萬葉假名), and Manyo-Kana was developed into Kana as Japanese. They began together but subsequently developed differently.

A Japanese historian and scholar of Chinese classics developed modern Hyangchal, and it alone has an important role. Before this, linguists affirmed that Korean and Japanese had the same writing systems that borrowed Chinese sounds and meanings. At the time of the creation of the characters, this was correct. However, this changed and the two writing systems became different.

We accept the claim that the interpretation will ultimately return to the ancient language, but it is not a matter of merely returning. Writing using borrowed characters is different to making sentences. Therefore, the system of Hiragana developing as a syllabic system adopted for interpreting Hyangga(鄉歌) as a writing system with borrowed characters was problematic. The methods of the Japanese Hyangga researchers were transferred to Korean researchers.

Another matter is the history of literature. It makes sense to refer to the Shilla(新羅) era when the Hyangga was created and appreciated. However, Hyangga appeared suddenly in the 20th century after a long absence. It was treated as an enjoyable thing by the public and modern researchers. It became used for cultural content so that an author, researcher and reader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terpret the content, and add new meanings. As a result, the phenomena of the return of the Hyangga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in the history of literature should be described. The Hyangga is now more meaningful, being found again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its message is unique.

Keywords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yangga(鄉歌), borrowed characters, Hyangchal(鄉札),
Manyo-Kana(萬葉假名), culture contents